

하도급 신고포상금 내부고발자도 1억원 받는다

물품 등 대물 변제 원칙적으로 금지·대물조건 공사발주 등 예외만 허용

오는 10월 하순부터 '갑(甲)질'로 불리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 대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예외사유만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차단하고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등

내부고발자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을 받으려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을 비롯,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포상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내부고발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공정행위 적발력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 기준

최대 1억원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앞서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달 개정된 하도급법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단서조항)를 마련했다.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를 비롯, 관련법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대물변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으면 대물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 피하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붉은 무' 안토시아닌 생성 유전자 발견

농진청, "식물체에서 항산화 능력 높일 수 있어"

농촌진흥청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을 축적하는 '붉은 무'를 분석해 안토시아닌 물질생성의 핵심유전자를 확인하고 식물체에서 항산화 능력을 높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무는 일반적으로 뿌리색깔이 하얀 흰색 무와 뿌리에 안토시아닌이 축적된 붉은 무로 나눌 수 있는데, 붉은 무에서 안토시아닌 생합성을 조절하는 핵심유전자 'RmYBI'를 찾아냈다.

'RmYBI' 유전자는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의 유전자들의 발현을 높이는 전사인자로 붉은색의 안토시아닌 생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지닌다.

핵심유전자를 담배와 애기장대에 도입한 결과,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의 유전자 발현이 늘고 천연색소 안토시아닌의 생성량이 4배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특히, 안토시아닌 축적이 증가된 식물체에서 노화 및 세포사멸에 주요인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증대됨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임선형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에서 확보한 항산화 기능성 안토시아닌을 생산하는 핵심 유전자를 활용해 단순히 영양공급을 위한 작물재배가 아니라 농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간선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로 바뀔까?

국회 황주홍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현행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돌아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 황주홍 의원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

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됐으나 선거과정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간선제를 실시하는 농협중앙회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조합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

해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황주홍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이라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농촌 현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오픈식 실시

전북은행은 25일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팔복영광교회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56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번 공부방 오픈은 전주시 팔복동 일대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업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동들에게 교육 및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공감해 팔복영광교회에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졌던 공간을 정리한 후 도배, 책상, 의자, 책장, 도서 등을 새롭게 지원했고, 주변일대 아동들이 언제든지 학습과 체험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

다.

특히, 전북은행 팔복동기업금융센터 직원들은 가구를 배치하고 실내를 정리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공부방을 방문해 아동들의 희망 멘토가 돼 주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은행도 지역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LH 전주만성지구 마지막 분양용지 공급

LH전북본부는 전주만성지구내 마지막 분양용지 10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토지는 블록형단독용지 1필지, 단독주택(주거)용지 2필지, 단독주택(점포)용지 4필지, 상업용지 1필지, 주유소용지 1필지, 종교용지 1필지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블록형단독주택 39억2900만원, 단독주택용지(주거?점포) 1억3200~1억8500만원, 주유소용지 16억1300만원, 상업용지 10억5900만원, 종교용지 6억7900만원 수준

이다. 전주만성지구는 143만㎡ 부지에 총 5,789세대(호)가 건설되는 복합 다기능지구로서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 시설, 풍부한 녹지, 교통 등 도심 배후시설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작년에 공급한 만성지구내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등 입찰 결과, 평균 경쟁률이 각각 48:1, 12:1을 기록했으며 평균 낙찰률 또한 단독주택 176%, 상업용지 166%를 기록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수도권 공략 가속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홍보 및 전북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남 농협유통센터에서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농산물 홍보 및 판매확대를 위해 수년간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통합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서울 창동 하나로클럽에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제철 맞은 완주 삼례 수박을 필두로 익산 토마토, 남원 파프리카, 부안 감자 등 6개 농협조합공터 동시엄밀인에서 출하되는 10여개 품목을 판매하며 시식 및 할인행사를 통해 성남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도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겠다"면서 "수도권 통합관측행사를 통해 판매농협 구원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